

2010.07. 29(목)

가정 경제 뉴스 브리핑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경기 침체 관련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⑥ 내수기업.

연합뉴스의 기획기사인 "신음하는 서민경제.. 실태와 해법" 중 내수기업에 대한 진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7부로 연재되는 내용이기에 이제 1부만 남았네요.

정부가 펼친 고환율정책의 이면 및 후 폭풍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출기업은 '천당', 내수기업에는 '지옥'인 상황이죠.

즉 고환율정책이 양극화 초래하면서, 서민도 물가부담에 짓눌려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율 개입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론 경제 관료들의 구두개입과 실제 시장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라는 기사처럼 인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수출기업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내수기업까지 모두 아우르며 고려하는 환율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연합뉴스의 기획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① 체감경기
-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② 시장물가
-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③ 빛의 도미노
-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④ 중소기업
-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⑤ 청년실업
-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⑥ 내수기업.

2. 생활 정보

*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가짜 한우 판매 죄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한 것이겠죠.

거기에 단초가 될 수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광명점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팔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최병렬 이마트 대표가 28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소고기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가짜 한우 판매보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다만 고의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소형점포였다"라는 변명이 없었으면 더 멋진 사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3. 대출 관련

* u-보금자리론 최저금리 설계형 3.68%, 기본형 5.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를 오는 8월1일부터 0.2%포인트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에 따라 8월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연 5.5%(10년만기)~5.75%(30년만기)이며, 고객이 이자율 할인옵션 등을 이용 시 최저금리는 5.3%입니다. 또한, e-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한편, 공사는 자금 조달 원가를 반영하여 설계형의 가산금리를 8월부터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의 가산금리는 0.25%포인트 인하, 코픽스(COFIX)연동형의 가산금리는 0.2%포인트 인상되어, u-보금자리론 설계형의 최저금리는 3.68%*(CD연동형)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확대·운영중인 설계형의 변동금리 최대기간을

8월 대출신청 건부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 생활관련

* 모든 대중교통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스마트폰 소지자 여러분께 희소식입니다.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했던 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KT와 '교통정보제공 및 모바일서비스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TAGO서비스(대중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TAGO 서비스는 사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전국의 시내·시외버스와 지하철, 철도, 항공, 여객선 등을 연계한 경로(환승 포함)와 요금, 소요시간, 잔여좌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외에 '교통알림e'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이미지나 문자로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안산, 용인 등의 소통 및 체증구간을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011년까지 수도권 22개 도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